하나의 지구, 감성과 서사로 기록한 시간의 풍경

조영신 사진전 'The Earth'…18일까지 무등갤러리

'대명매' '인물' 등 자연·감정 아우른 39점 작품 선봬

"사진을 찍으면서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꼈어요. 내가 본 것을 내 방식대로 담고 표현한다는 게 이렇게 큰 기쁨일 줄 몰랐어요."

예술적 감성과 디지털 기술을 입힌 사진 전시가 마련됐다. 사진작가 조영신의 첫 번째 개인전 'The Earth'가 오는 18일까지 광주예술의거리 내 무등갤러리에서 펼쳐진다.

이번 전시는 자연과 인간, 감성과 기술이 어우러진 작가의 사진 세계를 조명한다. 사진 및 회화 융합 작품 총 39점이 전시되며, 일부는 AI 기법을 활용해 수채화와 유화 질감을 입힌 회화풍 이미지로 재구성됐다. 전시장에 걸리지 못한 작품을 담아낸 영상도 함께 선보인다.

작가는 자연, 인물, 새 등 다양한 대상을 탐구하며 자신만의 시각 언어를 구축해왔다.

이번 전시는 하나의 주제를 설정해 전개

조영신 작가

하기보다는, 지난 수년간 축적해온 다양한 작업의 궤적을 다채롭게 펼쳐 보이는 자리다.

작가는 "연꽃을 처음 카메라에 담았을 때의 설렘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며 "디지털 기술과 예술 감성을 융합해 독창적인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포토샵과 AI 프로그램을 독학하며 작업 방식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왔다. 특히 사진 속 회화적 감성을 입힌 표현이 돋보인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이미지 위에 또 하나의 해석과 감정을 덧입히는 방식이다.

'대명매'

대표작 중 하나인 '대명매'는 3월 폭설 속 꽃망울을 머금은 홍매화의 모습을 포착한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화창한 날 꽃이 피어난 순간을 담아낸 두 작품으로 구성됐다.

눈 쌓인 나무와 활짝 핀 꽃이라는 두 장면의 대비를 통해 작가는 얼어붙은 시간 속에서도 언젠가 찾아올 봄날을 상상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유화와 수채화 질감의 작품 배경은 AI 보정과 회화적 터치를 통해 완성됐다.

작가는 "20일 넘게 수정하고 보정하며 완성한 작품으로, 나무와 꽃의 생명력과 인내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표작 '인물'은 네팔 화장터에서 마주한 남성들의 눈빛을 포착한 사진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피어나는 깊은 정서와 응시를 담아냈다.

작가는 "사진이 아니었다면 놓쳤을 강렬한 눈빛이었다"며 "관찰력과 감수성이 확장되는 순간들이 쌓여 나만의 언어가 됐다"고 설명했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기점으로 인물, 도시, 골목 등 보다 다양한 테마로 창작 활동을 넓혀갈 계획이다. 국내외 기획전과 단체 활동, 국제 사진 공모전 등에도 꾸준히 도전하고 있다.

한편 조영신 작가는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지회 정회원 및 간사로 활동 중이며 대한민국사진대전 다수 입선, 한국미술협회 광주지회 특선 수상 이력이 있다. 현재 KNS 뉴스통신 사진기자이자 무등사진동우회 회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올해는 미국사진협회(PSA Worldwide)가 공인한 국제사진공모전 'KOREA PHOTO ART 2025'(PSA2025-1737)에서 포토저널리즘 부문 PSA HM Ribbon을 수상했다. /최명진 기자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 본 남도 정취

원을지 개인전…29일까지 목포 KR갤러리

목포에서 활동하는 서양화가 원을지(사진)의 제6회 개인전 '남도 풍경-산에서 바다로'가 오는 29일까지 목포시 KR갤러리(평화로 38 골든타워 6층)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원을지 작가가 목포를 중심으로 남도의 산과 바다, 그리고 삶의 풍경을 다채로운 색감과 섬세한 표현으로 담아낸 작품들로 구성됐다.

특히 '그 섬에 가고 싶다' 연작을 비롯해 남도의 자연을 작가 특유의 서정적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해석한 작품들이 전시돼 익숙하면서도 색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남도 풍경-산에서 바다로' 전시는 남도의 섬과 바다가 지닌 독특한 자연미와 삶의 이야기를 예술작품으로 재조명, 남도 문화의 현대적 해석과 확장을 도모한다.

남도의 섬과 바다는 오랜 시간 사람들의 삶과 문화, 자연의 순환을 품어온 공간이다.

작가는 자연과 인간, 고요와 생동,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남도의 정취를 시각예술로 풀어내 감성적 울림과 치유

'유달산에 안긴 목포1'

의 경험을 제공한다.

원을지 작가는 민중미술운동의 대표적 이론가였던 부친 고 원동석(본명 원갑화)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민중미술과 남도의 철학을 깊이 흡수했다.

부친의 유작 '우리 예술의 미학-서방을 넘어 자본을 넘어'에서도 나타나듯이 원을지 작가는 남도의 황토와 철학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미학적 세계관을 구축해 왔다. 문의는 KR갤러리(010-2110-8990) /목포=정해선 기자

수묵 언어로 펼쳐지는 종교적 미학

박그림·지민석 작가, 2025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참여

샤머니즘과 불교, 무속과 자본주의가 수묵의 언어로 교차한다.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은 15일 "전통 종교적 세계관에 기반한 현대적 해석으로 독창적 미학을 선보여온 박그림, 지민석 작가가 2025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참여를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박그림 작가는 불교적 상징과 동시대의 퀴어 서사를 결합한 작업을 통해 인간과 자연, 성적 정체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그려왔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주류와 비주류가 아닌 하나의 세계로 조화를 이루는 순간을 소개할 예정이다.

박그림作 '심호도_춘수'

지민석 작가는 이번 비엔날레에서 그들의 작품이 깊은 사유의 계기를 제공하고, 관람객들에게 독특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명진 기자

지민석作 '코카콜라 여신'